

제426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6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1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4시09분)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준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3분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를 전에 유임된 송미령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대전환에 대한 입장, 새 정부 농정대전환 정책의 방향,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 개정에 대한 입장 그리고 송 장관이 기준에 견지해 온 철학과 가치가 농정대전환 과제와 부합하거나 충돌되는 내용 또 송 장관의 유임에 대한 대분노를 표출하며 유임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고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농식품부의 실무자들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자료 제출했으나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도 형식적인 답변이거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농정 기본 방향에 대해서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서의 농촌 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대전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농정 방향에 대해서는 제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

다만 핵심적인 질문이었던 농업민생 4법 구체적인 입장 또 전환 과제 중 예전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자료제출이 없거나 답변이 미진합니다.

어제도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정철학과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우리가 민생 4법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같은 내용이, 다른 추상적인 표현으로 같은 뜻이었다고 표현합니다만 그러나 농민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기에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 또 우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지, 개략적으로 거친 표현에 사과한다든지 전략적으로 같은 내용이다든지 이런 내용의 폼(form)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서 국민들이 또는 위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로 답변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보다 성의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요구해 주시고 송 장관께서…… 좀 넣어 주세요.

○위원장 어기구 3분 지났습니다.

○윤준병 위원 좀 넣어 주시라고요.

○위원장 어기구 1분만 넣어 주세요.

○윤준병 위원 송 장관께서 농업민생 4법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우리 농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 내용을 여기서 밝힐 의향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윤준병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성실한 자료답변 부탁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또 윤준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서류로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조금 더 정리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재의요구를 할 당시에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그 법안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한다, 취지에 공감하지만 몇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쌀의 과잉생산이나 특정 품목의 쏠림 현상들을 우리가 막기에는 제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재의요구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신이라는 것은 저는 분명합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법률과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의 그 소신이 일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과 우리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충분히 현장에서 실행 가능하고 그것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법률안을, 대안을 같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의 바탕에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면 한번 찾아뵙고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됐습니까?

○**윤준병 위원**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어기구** 예, 1분만 더 드립시다. 정책기획위원회 참여하시느라고 회의를 안 오셨기 때문에……

○**윤준병 위원** 내용은 무슨 취지의 발언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물론 부분적인 내용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일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펼쳐하거나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거나 이런 내용은 극히 잘못됐고요. 부분적인 의견, 견해가 있으면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행정부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이해관계거나 또 의견이 불일치되는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펼쳐하고 전체를 매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 입법이 안 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앞장서고, 이런 자세는 결코 농민의 기대나 위원들의 기대에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이 부분적인지 전체적인지 전체를 부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292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7854억 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하여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4046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통해 농업 분야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으로 364억 7000만 원을, 시설농가 면세유유가 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예산으로 42억 2000만 원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으로 168억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고, 청년·후계농에 대한 원활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하여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예산 1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하여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3292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575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 예산으로 해양영토관리 역량강화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양식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에 60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17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식어업인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 사업에 18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세입예산안 중 여수세계박람회 정부 선투자금을 상환하는 부분은 투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박람회장 활성화 지연 소지 등을 감안하여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정부 세입예산에서 329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밖에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23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북 초대형 산불피해 지역 중 일반벌채구역의 피해목벌채 지원을 위한 산불피해 일반벌채지 피해목 제거 사업에 1000억 500만 원, 러시아

KA-32 헬기 가동 중단에 따른 산불진화헬기 공백 해소를 위한 국외 임차헬기 도입·운영 사업에 555억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고, 초대형 산불로 송이 생산지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송이 대체작물 조성 사업에 104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장관님, 이번에 서해안 구조물 관련해서 용역비 10억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최종으로 이것을 지켜 낼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1차 추경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서는 조금 더 전투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저는 아쉬운 게 농림부장관님은 유임되고 왜 해수부장관님은 유임 안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해수부장관님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 규모를 키워 가지고—지금은 용역비입니다마는—발빠르게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꼭 본예산에는 담길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꼭 좀 지켜지도록 끝까지 챙겨 봐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챙기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조경태 위원 제가 어제아래 물가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물가에 대한 TF팀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가안정TF는 지금 차관을 위원장으로서 해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추경에 담기보다는 올해 예산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면 차관님께서 지금 TF팀을 맡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에 대한, 특히 식료품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한번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문대림 위원 저.....

○위원장 어기구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산림청장님, 헬기 임차 관련이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문대림 위원 헬기 구매 관련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구매 관련된 것은 추경예산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 2차 추경 때는 임차 헬기 관련 예산만 포함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구매 관련 묻고 있고요.

입찰 공고 내셨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냈습니다.

○문대림 위원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입찰 공고가 나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임상섭 그렇지는 않고요. 공개경쟁입찰이라서 저희가 필요한 스펙으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원래 국제조달협정 규정에는 입찰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는데.....

○산림청장 임상섭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우리 정부의 입장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원산지 제품으로 한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특정 국가의 헬기가 배제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그런데 그런 지적들이 과거에 좀 있었는데요.

○문대림 위원 지금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느 원칙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특정 국가로 얘기되고 있는 국가가 향후 우리나라가 북극항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 손을 맞잡고 가야 될 국가여서 관계 개선이 필요한 국가다.....

또 그리고 그 국가로부터 우리가 헬기를 구매하면서 구매비용 대신 차감할 비용들도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조달청 관련된 것도 있고요, 경제 제재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제재의 내용을 저희 방으로 한번.....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국제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해수부장관님, 조금 전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서해 잠정구역 내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그게 어떻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부 담겨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이 구조물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한 시기가 올해 3월 달인가 그 정도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5월, 6월, 7월 가면서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 놨어야 했는데, 어떻게 이번 본예산에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내년, 26년 예산에다가 72억 정도를 정부안으로 담아 놨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이만희 위원 용역비 10억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게 된다면 조금 더 빌드업이, 완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차관님도 직접, 같이 저걸 하셔야지만 반드시 추경 부분에서 지켜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주권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시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반드시 지켜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산과 관련된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긴밀하게 예결위나 이쪽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주기상으로 보면 각 부처의 예산 요구가 5월까지 되고 8월까지 기재부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일정으로 추진되는데 그 과정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된 만큼 새로운 국정기조나 또 정책 과제에 담아야 될 내용들 또 기존 정부에서 추진된 내용이 새로운 정부와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발굴하고 조정해서 새로운 정부에 맞는 정책 내용들 또 우리 농식품부 같으면 농정대 전환과 연계돼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담아져야 된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재원이라는 전체 규모가 한정돼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랄까 이런 부분이 내실 있게 정리가 되어야만 새로운 정부의 정책 과제나 또 실천 과제에 담길 수 있는 내용에 여력이 생기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제출됐다 하더라도 제출된 내용을 재점검하고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

면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국정과제에 담기는 내용이 제대로 실제 예산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내용이 실제로 제대로 담겨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 기대나 또 농어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그 부분을 제대로 점검해 주시고요. 점검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나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 차관께서 지금 국정과제, 아마 해수부도 마찬가지일 텐데 국정과제와 관련된 준비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좀 서둘러서 정부의 의견을 넣으려면 빨리 의견을 줘야 국정과제에 담길 수 있는 것이니만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점검하고 있는 내용을 좀 서둘러서 그 의견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우선 추경예산안과 관련돼서 해수부장관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주철현 위원 23번, 부산항 신항만(1단계) 사업과 관련돼서 진해항만 써 놓고 ‘북극항로 개척 거점항만’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하지만 북극항로와 관련돼서는 이것 화종별·선종별·항만별 특성을 고려해서 균형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고 또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진해신항이 북극항로 개척 거점항만인 것처럼 못을 박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것 작성된 경위에 대한 것은 제가 명확히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상임위 때 제가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결정된 게 없고 각 항만별로 특성화된 역량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항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진해신항을 북극항로의 거점항만인 것처럼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여기서 결정은 돼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건지지를. 그렇잖아요. 지난 상임위 때 장관의 답변 내용과 맞지도 않고 또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괄호 내용은 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논의해서 삭제를 검토 요청을 드리고요.

이제 농식품부장관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전남에 가장 중요한, 농지도 많고 농업 인구수도 제일 많은 전남의 가장 큰 공약사항인 주민참여형·공익형 영농 태양광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빨리 좀 해서 농업소득 외에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여러 가지 소득을 올려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입니다.

전남권 전체 도민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민주당 전남도당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농민들의 희망사항이라서 그렇게 공약을 넣어서 반영을 했는데, 이것들이 빨리 속도감 있게 시행되려면 말씀드린 대로 공익형 영농 태양광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전국의 모든 농촌에 동시 시행할 수는 없으니까 농식품부가 주관이 돼서 전남이라든지 몇 군데를 일단 시범실시해 보는 게 좋겠다, 시범사업을. 가급적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해서 속도감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농촌이 지속가능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주철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위 위원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윤준병 위원** 주철현 위원님, 해수부 예산 내역 중에 22번 항목, 대체토론 요지에 ‘지정학적 강점을 보유한 진해신항(북극항로 개척 거점항만)’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이것은 서천호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를 하실 때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그 뒤의 팔호 내용을 삭제해도 관계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병 위원** 꼭 고집해야 될 내용이 있으신가요, 서천호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서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아까 심사할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북극항로 부분이 지금 현재 큰 프레임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사실 어젠다로 던진 부분인데 어제도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항만을 특성에 맞게끔 활용하자는 취지였고 그 부분에 북극항로를 염두에 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빼도 되겠냐고……

○**서천호 위원** 그래서 기존의 그런 부분인데 북극항로 부분을 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은 포함시키되.

○**윤준병 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예결심사소위에서 면밀히 잘 심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농어민 부채 탕감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취약계층 장기 연체 채무 일괄 소각 사업 정부 예산 4000억에 우리 농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추가…… 소각 사업에 필요한 예산 4000억으로 농어민 채무 일괄 소각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본심의에서 예결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봐 달라는 부탁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런데 캠코 출자 사업의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이게 농어민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캠코 출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에서 다뤄 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부대의견으로는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 최종 설명자료에 농어민 부채 탕감 계획이 이번 추경에도 고려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살폈다라고 하는 취지가 우리 농어민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어제 그 말씀 주셔 가지고 저도 걱정이 많아서 아침에 대통령님 시정연설 전에 중기부장관하고 금융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분류군으로 사실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7년간 5000만 원 이하의 부채 탕감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팅(sorting)을 하면 많이는 안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장관 두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개 부처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 주시면, 일 진행하는 데 저희도 사실은 좀 벽찬 부분이 있어서 소관 위원회랑 같이 얘기를 좀 나눠 주시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준병 소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준병 위원** 소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추경은 추경대로 정리를 하시고요. 내년도 예산 사업을 할 때 어차피 국정과제나 실천과제들이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지금 국정지표 중에 소상공인이나 이쪽의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채 탕감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농어민들에 대한 내용도 소상공인의 범주 내에 같이 포함돼서 국정과제 내용의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제대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부처에서도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체킹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거기에 꼭 담길 수 있도록 요구를 자꾸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지금 단계에서 제대로 안 챙기면, 이후에는 국정과제 박힌 대로 그대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챙겨서 농어민들의 부채 탕감도 전체 약자 계층,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채 탕감의 일환으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꼭 해 주시라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차관님들 그 내용 점검 잘 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속에 꼭 포함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이후에 관리될 때 그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점검을 꼭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해 드리니까 꼭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곧 의결을 할 텐데요, 저도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차 추경을 해 봤잖아요. 이때 우리가 방어를 거의 못 했습니다. 해수부장관께서 1차 추경보다 좀 더 전투적으로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 또 정부, 조금 더 전투적이 아니라 매우 많이 전투적으로 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소회의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차관님들이 가서 예산을 쭉 설명할 텐데 산림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때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차관님들 특별히 이 예산을 항목 항목마다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모든 예산이 예결소위를 통과해서 본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꼭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위원장 어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산림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 까지 세심히 살펴 주시고 보완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남은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안 및 결산 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염려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한편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더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제2회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산림청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강명구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만희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조경태 주철현

○출장 위원(1인)

정희용

○첨가 위원(1인)

조승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차관 김성범

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산림청

청장 임상섭

기획조정관 이종수